고흥 이야기가 있는 마을 〈시즌 2〉

6 점암면 성기리 성주마을

오랜 세월 척박했던 땅. 그만큼 사람들의 세상살이에 대한 의지는 강했다. 강하고 질긴 태도와 능력으로써만 세상은 살아지는 것이었다. 그러는 동안 이야기는 쌓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산한 삶을 이어가면서 이야기가 만들어졌다. 밝고 슬프고 아름답고 비극적이어서 더욱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 설화는 그렇게 오래도록 쌓여 전해져오고 있다. 전남 고흥군을 다시 찾는 이유다. 지난해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고흥의 이곳저곳 땅을 밟으며 다양한 이들을 만난 스포츠동아는 올해에도 그곳으로 간다. 사람들이 전하는 오랜 삶의 또렷한 흔적을 확인해가며 그 깊은 울림을 함께 나누려 한다. 매달 두 차례 독자 여러분을 찾아간다.

고흥 점암면 성기리 성주마을 만경암 가는길

일제에 맞선 두 소년, 만경암 돌담 아래 잠들다

나라 되찾기 위해 죽창 든 동우와 만식이
만경암 전투서 일본군 총탄에 숨 거두고
"나라가 위태로우니 싸우는 건 당연하다"
그 비장함 시퍼런데 표지판마저 사라져

설화는 수백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사실 자체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여러 사람의 입을 거치면서 이야기가 변질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09년 7월 전남 고흥군 점암면 성기리 팔영산의 만경암에서 일어난 의병운동을 담은 설화 '만경암 전투에서 핀 꽃 두 송이'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

한국독립운동사 자료에도 기록돼 있는 이 설화는 15살의 두 소년이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이후 나라의 힘을 되찾기 위해 만경암에서 많은 의병들과 함께 일으킨 항일운동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들은 "나라가 없으면 어차피 우리도 없다"는 결의로 일본군의 무력에 맞섰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의 기록, 주민들은 그 흔적을 되살리고 싶어 한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두 소년

동우는 어디론가 떠날 채비로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 모습을 본 어머니는 만경암으로 향할 것을 짐작하고 "나라가 위태로우니 나아가 싸우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걱정을 떨쳐내지 못한다. 동우는 어머니께 절을 올리고 집을 나선 뒤 친구 만식이와 만난다.

"동우야, 너는 안 떨려? 나는 왜 이렇게 떨리지?"

동우는 만식이의 손을 꽉 잡아주며 말했다.

"나도 떨려. 하지만 일본놈들이 우리나라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놔둘 순 없잖아. 우리에게도 나라를 제대로 못 지킨 잘못이 있지.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힘을 모아 잘 지키면 돼. 나는 나라를 위해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서 뿌듯한 마음도 있어."

동우와 만식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윽고 도착한 만경암, 비장한 적막을 깨는 총소리가 들려왔다. 일본군이 떼로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격전이 벌어졌다. 죽창을 손에 쥔 동우와 만식이는 "말로만 들었던" 총의 위력을 눈앞에서 보고 순간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일본군을 향해 매섭게 달려들며 죽창을 휘둘렀다.

그러나 일본군의 무차별 사격을 언제까지 피할 순 없었다. 만식이는 일본군 총에 맞아 숨을 거뒀다. 그런 만식이를 동우는 부둥켜안고 울부짖고는 친구를 위해 죽창을 다시 들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동우도 만식이 곁에서 눈을 감고 말았다.

그렇게 막 피어난 생의 꽃은 붉게 물들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 두려움 속에서도 몸을 내던진 소년들의 비장함은 지금까지도 귀감이 되고 있다.

●선조의 기록을 지키지 못한 죄송스러움

동우와 만식이의 얼이 서려 있는 만경암 전투 장소는 팔영산(608m) 입구에서 약 50분 정도 올라가면 볼 수 있는 흔들바위 뒤에 있다. 사람의 손이 아닌 자연의 힘으로 다양한 크기의 돌이 담을 이뤄 쌓인 형태이다. 당시 의병들은 돌담으로 몸을 숨겼다가 일본군이 접근하면 튀어나와 공격을 했던 것이다.

고흥문화원 송호철(47) 향토사 연구위원은 "팔영산은 고흥에서 가장 높고 겹산(여러 겹으로 된 산)이어서 토굴도 많아 피난처로도 좋다. 또 산세가 험해 일본군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자연환경"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만경암으로 향하는 길은 가파르고 거의 돌로 이뤄져 있다. 아침이슬이나 빗방울이 돌에 떨어지면 방심하는 순간 미끄러져 발을 헛딛기 딱 좋은 지형이다.

이렇게 유서가 깊은 역사적인 장소이지만 그 존재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팔영산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한 곳으로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관리인이나 대부분의 관광객은 만경암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제대로 서 있었던, 만경암 전투의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표지판은 현재 사라졌고, 산행하기에 위험하다는 이유로 출입도 금지돼 있다.

송호철 위원은 "어린 나이의 많은 선조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던진 곳이다. 이 비좁은 곳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상상해봐라. 얼마나 마음이 찡한가"라며 "다시 알리고 싶은 역사이다. 군청 측에도 표지판을 세워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고흥(전남) |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 설화 참조 및 인용: '만경암 전투에서 핀 꽃 두 송이' 안오일, '고흥군 설화 동화' 중)

? 설화
사람들 사이에 오랜 시간 구전(口傳)돼 내려오는 이야기. 신화와 전설, 민담을 포괄한다. 일정한 서사의 구조를 갖춰 민간의 생활사와 풍습, 권선징악의 가치 등을 담은 이야기다.

전남 고흥군 점암면 성기리 팔영산의 만경암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본군에 맞서 목숨을 바친 두 소년의 정신이 살아 숨쉰다. 멀리 보이는 팔영산의 8개 봉우리를 넘고 넘어 일본군의 공격을 피하기도 했다.
고흥(전남)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실질적 평등에 근접한 ABBA 승부차기

Sports & Law Story
양중진 부장검사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

평등은 헌법상 기본권…기회의 균등 보장
실질적 평등은 과정·결과의 균등까지 고려
승부차기 역시 좀더 공평한 방식으로 발전

승부차기는 '11m 짜리 러시안 룰렛'으로 불린다. 자칫하면 모든 걸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벌이는 무모한 모험이라는 의미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만큼 운도 따라주어야 한다. 골키퍼와 1대1로 맞서는 키커의 긴장감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다. 오죽하면 FIFA의 회장이던 제프 블라터도 '재앙'이라고 표현하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하자고 했을까!

월드컵에서 승부차기가 도입된 것은 19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이 처음이었다. A-B-A-B처럼 A팀과 B팀의 선수들이 번갈아가며 한 번씩 차는 방식이었다. 이런 순서로 양 팀에 다섯 번씩의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이 정말로 공평하게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일까?

만일 공평한 방식이라면 먼저 차든 늦게 차든 그 승률이 비슷해야 한다. 즉 A팀이든 B팀이든 기본적으로 50% 내외의 승률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실제 승률은 그렇지 않았다. 그 동안의 결과 분석으로는 먼저 찬 팀의 승률이 60% 가량이나 되었다고 한다. 사람의 심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먼저 찬 선수가 킥을 성공시키고 나면 나중에 찬 선수는 심리적인 긴장도가 더 커지다 보니 성공률이 떨어진 것이었다.

또 승부차기는 리그전이 아닌 토너먼트 방식에서 주로 열린다. 지면 탈락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인 것이다. 괜히 '11m 짜리 러시안 룰렛'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다. 이런 순간에 60% VS 40%의 승률은 당사자에겐 매우 큰 차이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과연 공평한 방식일까?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평등권은 문명국가라면 모두 다 보장하고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제7조에서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연합헌장이나 우리 헌법 역시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평등권은 남녀평등, 인종 차별 금지, 외국인 차별 금지, 학력 차별 금지 등등 그 영역이 매우 다양하다. 물론 스포츠 분야에 있어서도 평등권이 보장된다.

평등권은 여러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도 그 중 하나다. 형식적 평등은 통상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반대의 영역에 있는 것이 실질적 평등이다. 기회뿐만 아니라 과정이나 결과까지도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UN 회원국이 모였다. 평등한 감축을 위해 회원국 전체가 현재 배출량의 10%를 일률적으로 감축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선진국처럼 많이 배출하는 나라는 30%를 감축하고, 후진국처럼 배출량이 적은 나라는 10%를 감축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어느 것이 더 평등한 감축이라는 이상에 맞는 걸까? 이처럼 형식적 평등은 기회의 균등을 의미한다면, 실질적 평등은 과정이나 결과의 균등까지 고려한 평등을 의미한다.

●실질적 평등으로 일보전진

승부차기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똑같이 다섯 번의 기회만 보장하면 평등한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먼저 차는 팀이 유리한 게 사실이었다. FIFA도 이러한 결과에 주목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열린 U-20 월드컵에서 최초로 승부차기 방식을 변경했던 것이다. 즉 기존처럼 A-B-A-B 방식 대신 A-B-B-A-A-B-B-A방식을 도입했다. 한번은 A팀이 먼저 차고 그 다음 한번은 B팀이 먼저 차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새로운 방식이 실제로 균등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 하지만 선수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걸 보면 좀 더 실질적 평등에 접근한 방식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스포츠를 지배하는 이념은 정의

승부차기를 도입하기 전에는 동전 던지기로 이긴 팀을 결정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운에 좌우된다는 비판이 있어 좀 더 실력으로 평가하기 위해 승부차기를 도입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좀 더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평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의와 같은 문제라고 인식되어 왔다. 즉, 평등하지 않으면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승부의 세계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스포츠가 추구하는 이념이다.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승부차기는 얼핏 보면 양 팀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미묘한 승률의 차이가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이라는 개념을 대입하면 더욱 뚜렷해진다. 2016코파아메리카 칠레와의 결승전에서 승부차기를 실축한 뒤 자책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리오넬 메시. AP뉴시스